

시론

우리는 몸의 종일까, 주인일까?



박 남 기
광주교대 교수

우리는 몸의 종일까, 주인일까? 어떤 사람은 몸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 그것도 가혹한 주인이라고 한다. 주인 눈치 보지 않고 맘껏 케이크를 먹거나, 필름이 끝날 때까지 술을 마시면 가차 없이 응징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최후통첩을 보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혹독한 주인인 몸을 잘 섬겨야 하는 종이라고 한다.

관절과 근육이 있는 몸 일부분을 제외하면 내 의지로 움직이거나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심장과 위장을 비롯한 내장도 내 명령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심지어 내 기분마저도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진다. 몸의 각 기관이 잘 작동하도록 돕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러니 우리는 몸이라는 주인인을 잘 섬겨야 하는 종이라는 말이 나온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다. 그런데 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소리다. 눈 앞의 현상만 보면 그리 보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 보면 결국 몸을 지속시킬지 여부는 우

리의 결정에 달려있으므로 몸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후 절대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몸은 그 절대자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종일뿐이다.

주인이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전혀 배려해주지 않을 때, 그리고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그래도 안되면 사일씩 속내를 비치는 순한 종이다. "주인님 아무래도 제가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인님 제 상황이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저를 조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그러한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계속 횡포를 부리면, 몸은 주인 잘못 만난 죄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공부하느라 너무 무리한 탓에 30대 중반에 백내장이 와서 양쪽 눈을 수술해야 했다. 의술이 좋아진 덕에 했던 공부를 펼치며 행복하게 살아왔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당당봉사로 평생을 살아야 했을 것이다.

사람은 취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아주 뜨거운 물 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델 수밖에 없다." 좋아하던 담배를 끊은 자신이 참 똑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김홍신은 이런 말을 남겼다.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하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하겠습니까?"

주인 잘못 만나 후사당하고 있는 몸을 측은지심으로 대하면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봉사할 것이다. 학창시절에는 대학도서관이 문을 닫는 명절이 나에 게 유일한 휴일이었다. 그리 살던 중에 몸이 너무 지쳤다는 신호를 보내오면 하루를 포기하고 종일 잠을 잔 것이 내가 몸에게 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보상이었다. 어느 날은 점심 무렵에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 아직도 점심 무렵이었다. 실컷 잔 것 같은데 겨우 한 시간 정도 시간이 흘러 참으로 신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루하고도 한 시간을 죽은 듯이 잔 것이었다. 그래도 버티면서 아직도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몸을 위해 가능하면 몸에 좋지 않은 것은 먹지 않고, 시간을 내어 함께 산에도 오른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비로운 주인으로서 종의 사정을 헤아려주고, 종을 너무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소설가 김홍신은 「인생 사 용 설명서」에서 37년6개월이나 피우던 담배를 끊었던 이야기를 한다.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는 그의 수필 한 편이 애연가 동호회 사이트에 올라 있을 정도로 애연가였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타 끊었다. 그의 스승이 던진 한마디에 정신이 파득 들 었단다. "취는 취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몸에게 주인 행세하는 것도 옳지는 않은 것 같다. 몸은 나와 더불어 험난한 인생길을 함께 해온 동반자였다. 그의 조용한 배려와 격려 덕에 내 길을 헤쳐 나 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내 욕심을 줄이고, 그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며, 연이 다하는 날까지 아끼고 의지하며 살아야겠다.

社說

‘金’된 김 K푸드 열풍...전남 경쟁력 강화 올인해야

전남의 김산업이 증흥기를 맞았다. 한국 김과 김밥이 웰빙식으로 글로벌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K-푸드' 열풍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단일 수 산식품으로 처음 수출 1조원을 돌파,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최대 산지인 전남이다. 도내에는 해남 502호, 신안 504호, 진도 479호를 비롯, 12개 시·군 총 2 천702호의 어가가 김을 양식하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은 전국의 79%, 생산액으로 83%를 차지 하는 규모다. 수출액은 지난해 9천688만4천달러 로 상승했다. 1년 전보다 61%, 10년 전에 비해 무 려 462% 폭증했다. 올해도 즐거운 비명이다. 202 4년산 생산량은 35만6천931t, 금액으로 6천703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생산은 4% 늘었지만 금액으로 따져 69% 증가했다. 최근 3 년 평균에 비하면 85%나 뛰었다. 역대 최고다. 통상 김은 10-12월에 나오는 곱창김이 1-4월 생 산되는 일반김보다 훨씬 비싼데도 가파른 수요 가 가격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다.

가히 '금(金)'이 된 김이다. 올해 들어서만 25

배 가까이 급등했다.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김 산업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다. 해남·신안·장흥·진도군 4개 지역은 정부의 '진흥구역'으로 지정됐다. 위반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소형 어선에 몸을 실은 어 민들은 졸곤 고된 업무에도 웃음기가 역력하다. 다만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한국산 김은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 다. 수출은 지난 10년 간 연평균 8% 수준으로 증 가했고, 대상 국가도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4 개로 2배에 달한다. 서구인들이 '블랙 페이퍼(BL ack Paper·검은 종이)'라고 부르며 의문하던 김이 한류를 타고 폭풍 인기다. 수요가 안 받쳐 줘 과잉 생산으로 값이 하락했던 과거와 판이하 게 다르다. 물량이 많고 설비를 늘려도 제때 물 건을 대지 못하고 있다. 고부가 먹거리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전남도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야 할 것이다.

광주 5·18과 제주 4·3 연대가 공고해야 하는 이유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의 연대가 공 고화되고 있다. 완전한 진상규명을 통해 치유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움직임이다.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주와 광주에 평화의 씨가 날리는 그날까지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날에는 내륙 최초로 4·3 희생자를 기억하는 조형물인 4월결상이 광주에 건립됐다. 지난해 5 월 제주도민들이 5·18을 기억하며 오월결상(제6 호)을 세워줬던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광주 시민사회의 모금으로 제작된 것이다. '민중의 힘'이라고 이름 붙인 결상의 윗 부분엔 4·3의 상 징인 동백꽃이, 그 옆에는 '제주 4·3, 오월 광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가치가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힘쓰자는 의미를 담았다.

국가폭력에 의해 민간인이 죽임을 당한 4·3 과 5·18은 현재진행형이다. 수십년이 지나도록 진실은 깊숙이 잠들어 있다. 피해자만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오히려 의기양양 호의호식하며

전수를 누렸다. 학살에 대한 책임은 묻히고 있 다. 5·18은 발표 책임자 찾기에 실패하고, 계엄 군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확인되고 있으나 가 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허위로 판명된 북한 특수군 광주 일원 침투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극한의 이념 대립으로 벌어진 비극인 4·3 또한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일어난 무장 폭동이라고 거짓 선동한다. 허무맹랑한 왜곡과 폄하로 상 처를 더 후벼파고 있다. 한시도 편치 않은 통탄 의 세월이다.

진정한 봄은 아직이다. 정부가 무고한 희생과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4·3의 폭력은 6·25전쟁,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에서 복습하고 재현됐다.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 가 완결되지 않은 때문이다. 정부는 분명한 의무 와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국민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해서 광주의 5월과 제주의 4월의 기억, 끊임없이 되살려야 한다. 연 대해야 한다. 집단적 민행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공동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난장



최 래 오
들꽃작은도서관장

별채 노년이다. 베너드 쇼의 '우물쭈물하 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는 묘비명을 읽 으며 살아있는 노년에 미소 짓는다. 노년을 어떻게 즐겨 볼까? 날마다 평범하게 시작 되지만 지내고 보면 새로움과 다양한 썸이 이어진다. 물론 가끔 어려움이 따라오기도 한다. 그런 어려움마저 살아있는 날임을 알 게 해주기에 즐거운 일이다. 자연 속에서 살 면서 본인을 자연재벌이라고 칭했던 이가 있 다. 알고 보면 노인은 '시간 재벌'이다. 텅 비 어있는 일정, 그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시골에 살면서 몸으로 느끼는 사자성어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이다. 우공이 산을 옮 기듯이 천천히 꾸준히 하면 된다. 느리고 일어난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시작한다. 느긋하게 차 한잔을 마시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를 연다. 그리고 내려있는 집안 일을 한 다. 혹여라도 밖에 나가면 사람을 만나는 일 이 즐겁다. 자동차에 연료와 밥값만 으면 된다.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으면 출고 숙박비 정도의 돈이 있으면 장거리를 갈 수 있으니 더 좋다. 청년시절이나 장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물론 그 시절, 설레임 과 꿈이 있었다. 그러나 고뇌에 가득 찼더라. 지금 맞이한 노년의 이 자유로움을 난 응

노년은 즐겁다

골차게 누리고 싶다.

버킷리스트도 '오토바이 라이딩'을 마지막 으로 모두 마무리했다. 사실, 즐거운 노년은 쉽지 않다. 퇴직 후 시골로 와서 새로운 환경 에서의 매너리즘으로 공황장애를 겪었다. 그 리고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적잖이 배 우고 깨우쳤다. 노년은 외로움으로 시작된 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외로울 수도 있다. 어쩌면 외로운 게 아니라 심심한 거다. 외로움 타령을 하기에 시간이 아깝다. 외롭다고 느껴지면 바로 일어나 길을 나선 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지천으로 널린 작 은 풀꽃을 마주한다. 거기서 아름다움을 보 게 되며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

점차 인간관계가 정리돼 갈등이 줄어들었 다. 경제적 쓰임새도 줄어 적은 돈으로도 생 활이 가능해졌다. 새로운 배움보다 배운 것 을 반복하고 익히기에 바쁘다. 모임도 정리 돼 생활이 단순해진다. 퇴직 후 시골로 들어 와 산 지 벌써 10년째다. 도시에 살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경험을 두루 했다. 뒷밭을 일구 고 수확하면서 자연을 배운 것이다. 닭을 방 목해서 기른 7년 동안 닭모이를 찾아오는 쥐, 산 짐승, 그리고 하늘에서 맴도는 매에게서 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지루하게 계속됐 다. 끝내 닭은 매와 산짐승에게 먹혀 사라졌 다. 마당에 낸 물길에 개구리가 찾아와 울어 댔다. 처음에 그 노랫소리가 반가웠지만 점 차 많아지다 보니 개구리 소리가 소음이 됐 다. 개구리 역시 물길과 개구리를 찾아 마당 에 서식하게 된 뱀의 먹이가 되어 없어졌다. 자연히 물길도 메워졌다. 먹이 사슬의 생성 과 소멸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 초기엔 슬리 퍼를 신고 다녔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안전

한 등산화를 신게 됐다. 오가면서 머리를 자 주 부딪히게 돼 모자를 쓰게 됐다.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각도 변하고 모습도 많이 변하게 되었다.

시골의 노년은 배움으로 바쁘다. 또 노년 은 생산보다는 소비의 시기이다. 근면하게 살면서 소비를 잘 하면 된다. 퇴직 이후 오랫동안 소비자로만 살아왔다. 가끔은 돈을 버 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수락하지 않았고 대신 쓰지 않는 생활로 버텼다. 한편으로는 내 가 일하면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라는 생각에 응하지 않았다. 노년은 나를 위 해서 사는 시기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즐거운 때라고 생각한다. 당 당하게 콘서트 치고 싶다. 노년은 그런 때라 고, 여행을 하다보면 '어르신' 하면서 다가와 도움을 주는 이들이 고맙다. 내 몸과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주위 사람이 챙겨준다. 그런 마음이 고맙다.

젊은 날에는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 오지 않았다. 그러나 노년은 그 반대다. 작은 감동에도 눈물이 절로 난다. 영화나 TV에서 조금이라도 슬프거나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 면 눈물을 쥐어짜며 즐긴다. 모든 노년의 마 음에는 청춘으로 가득차 있다. 그 청춘으로 남은 세월을 즐겁게 보내면 된다. 노년의 사 고에서 벗어나 청춘의 마음으로 한가로움을 즐기는 한량이고 싶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즐기는 풍류인이 되고 싶다. 약기 한두 가지를 익혀 연주를 하고, 독서와 글쓰기로 자신 을 가꾸어 나가며, 낯선 곳을 찾아나서는 여 행을 하면 얼마나 즐겁겠는가. 이런 나날이 계속되는 노년의 시간이 정말 좋다.

독자투고

완연한 봄을 느끼게 하는 시기가 되면서 지금 농촌에서는 한해의 결실을 좌우할 분주 한 농번기가 시작됐다. 봄철이 되면서 농민 들이 들녘에서 농사일을 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 나면서 요즘 도로변을 운행하는 경운 기, 트랙터, 관리 등 농기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농도인 전남지역이 갈수록 고령화 시대에 접어 들면서 이에 따른 농기계 사고 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서 봄철 한해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4-5월에 농기계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 농촌지역 도로 여건상 자동차와 농기계 가 도로를 같이 주행하는 형태이다 보니 곳

봄철, 심심찮게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주의해야

곳에 사고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에 농 기계 주 운전자들이 고령의 노인들이다 보니 조작이 힘들어 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점도 사고 요인이 되고 있다. 농기 계 사고는 구조상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불 러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 기도 한다. 사고예방에 앞도는 없다.

경운기 등 농기계 운전자는 야간 운행을 자제하는 한편 부득이 야간운행시 점멸봉, 반사지 등 야간 시인성 확보 안전장치가 선 행된후 도로에 나설필요가 있고 운전자 또한 야간운전시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긴장 운전

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또 한 농기계에 비해 상대적 가속도가 높은 차 량 운전자들은 시골길에서 특히 서행운전을 생 활화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일몰 이후에는 농기계 운행을 최대 한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야 간 반사경이나 야광 페인트를 칠해 차량 운 전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후 방 확인이 안될 정도로 적재함에 많은 물건 을 싣는 것도 주의해야 사고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김덕형·무안경찰서 통탄치안센터장>

그래픽 뉴스

국제 금값 온스당 2천300달러 첫 돌파...인플레이 재개 우려 반영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둔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3일(현지시간) 금 선물 가격 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천300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 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 가는 전날보다 32달러(1.5%) 오른 온스당 2천31 5달러를 기록, 사상 처 음으로 온스당 2천300달 러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금 시장 참



가치들이 인플레이션 방동 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베풀고 있다 고 보고 있다. 금 가격은 지난달 4일 사상 처음으로 2천100달러선을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2천3 00달러를 넘어섰다. 금값은 통상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거나 금리가 낮아질 때 상승하는 경향 이 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투자자산으로 금을 찾는 수요도 있다.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 가 커진 가운데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이 미 국제 수익률 하락을 초래하면서 금 가격 상승 을 부추겼다.

파월 의장은 이날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단순한 오점(bump) 이상을 의미하는지 판단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다"라고 말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발언을 경계한 시장을 안도하게 했다.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도 인플레이션 재개 우려와 맞물려 금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입부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고 실행요령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